

# 반미반전

## 전여대협 1-2월 사업계획서(토론용)

주는 기쁨: 5기전여대협

받는 즐거움: 각 단위 여학생회

주문: 1차 토론이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단위에서는 토론중심보다 실천중심으로 가져갈수 있도록 합시다.

### 흐름

- ▶ 들어가며
  - ▶ 99년 1-2월 시기규정
  - ▶ 대중투쟁과제
  - ▶ 대중의, 조직화 방도
  - ▶ 조직적 과제
  - ▶ 사상적 과제
  - ▶ 토론
- 학습을 활성화하자.

## 들어가며

우리 여학단위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세에 대한 자기 인식과 자세입니다.

정세를 알아야 우리 민중의 삶이 나아가 여성민중의 도탄에 빠진 삶을 느낄 수 있고 느껴야 자신이 주동에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벌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모두가 정세에 대한 인식력을 높이기 위해 간략하게 정세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자 합니다.

**한총련은 지금의 정세를 돌아보며 100일간 비상시국을 선포했습니다.**

핵전쟁으로 인한 7천만의 참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국면이 현실화되려는 단계에서 4천만뿐 아니라 7천만 어느 누구도 가만히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참화는 우리 2천만 여성민중을 더욱 더 참화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에 전쟁 책동 자행하는 미국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조국 통일과 반미항전으로 몰아 50만 청년여학도는 하나같이 일떠서서야 할 것입니다.

## 정세를 나의 심장에 새기자 !

★정세의 서술방안은 (한총련 반미 반전 비상시국 사업계획서를 먼저 숙지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알자.
- ◀미국과 대한민국도 전면전공에서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근거
- ◀미국과 세계장권의 몰락으로부터의 탈출구-전쟁책동의 원인
- ◀사민지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성민중들을 더욱더 이루말 할 수 없는 참화를 가져온다.
- ◀통일과 결성적 국면이 도래했다.

### ①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제대로 알자.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막상 전쟁공포증을 느끼는 일꾼들도 있고 어떤 일꾼은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본다면 나무만을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것인가를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주인인 자주민중을 중심으로 보면됩니다.

전세계의 민중들은 제국주의의 입체적인 탄압에도 자주민중으로써의 활로를 모색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후 구체적으로 진술) 이런 자주민중을 착취하여 껍데기뿐인 허풍경제를 통해 군림해 왔던, 통틀어 한줌밖에 되지 않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똥줄을 타고 더 이상 탈출구가 없는 미친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후 그동안 미국을 지지해왔던 전세계의 여론이 미국에게 등을 돌린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내외의 분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은 더 이상 출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발악이나 해보자는 심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주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을 배가 아파하면서 자신이 몰락직전에 와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미제는 너죽고 나 죽지는 식으로 덤빌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래왔듯이 지배 약탈자들은 결코 스스로 몰려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주민중들의 투쟁에 의해 물리쳐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의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고 결국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게 사대정치하는 정권에게 투쟁으로 개혁해나갔으며 그의 본질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몰아내는 투쟁을 벌여왔었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를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7천만의 통일염원을 방해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북을 고립 압박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북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에 의해 미국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남이나 북이나 다같이 민중들의 주인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었던 것은 미국이라는 것으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한반도를 정치, 경제, 군사, 문화등 전변으로 지배하면서 통일투쟁이나 민주화 투쟁을 본질적으로 막아나섰던 미국이 한반도를 핵으로 참상을 계획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4천만뿐 아니라 7천만의 생명줄을 걸고 반미 반전항쟁으로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 ② 미국의 대한반도 전면침공에서 전쟁이 가시화되고 있는 근거

◆미국과 일본의 각종 시사지와 신문의 내용에서 한반도 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공언.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이북을 침공하려는데에 부인할 수 없다고 했고 일본 니혼게이자 신문 한반도 정세분석 보고서에서도 내년 2월 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한미일 군사공조가 더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94년 이래로 미국은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시킨다.'는 명목아래 일본까지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구도를 그리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대북경제 아래 아주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일간 군사동맹-미국의 이라크 폭격이후 미국과 영국의 이라크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적극 지지 표명에 나서고 이는 북한 견제 의식의 표현이었다고 공공연하게 표명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무력공격 개시 30분 전에 이를 사전통보 받은 뒤 2시간여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 또한 미일간에는 미제의 유사시 군사적 행동에 대하여 일본이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위대를 발동할 수 있는 한계선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라는 주변유사시범을 계획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중국과 한반도 민중들을 노예로 삼고 반인륜적 작태를 벌여왔던 역사의 과오를 씻기도 전에 일본의 군대가 다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로 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일간 군사동맹-10월 3일 동해에서는 한일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함선들인 하리마호, 떼제브리호, 미호코등이 참가했고 얼마전 남해에서는 이북과의 전쟁을 대비한 전쟁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며칠전 이북의 반잠수정이 침몰되었다고 쇼를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의 공군기와 해군이 즉각적으로 개입되었습니다.】**

**【한미간 군사동맹-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해방이후 미군의 10만 대군을 주둔시켜 놓고 한반도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분단을 고착하는 주범으로 수많은 우리 민족의 여성들을 유린해왔고 살인, 강도, 약탈행위를 자행해 왔었습니다. 독수리 훈련, 화랑훈련, 미래의 시험전쟁 1999와 같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이 5027의 단계적 훈련과정에 있습니다.】**

◆클린턴 방한에서 전쟁준비 마지막 점검인양 주한미군을 사찰한 것과 관련해

◆북의 있지도 않은 핵지하시설물을 사찰하지 못하게 될 경우 단호히 하겠다고 하면서 5027작전을 공공연히 전세계에 공언하고 있는것과 관련해 ( 한반도 내에서 한달전쯤에서 각종 군사훈련에서 오발된 무기의 파편들이 민간인구역에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사태는 98독수리 합동 전쟁연습이나 98화랑전쟁연습이라는 일련의 실전훈련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

◆미국의 페리 국방장관이 한중일을 돌아다니며 대북정책과 관련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것.

더 구체적인 것은 한총련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③ 미국과 사대정권의 몰락으로부터의 탈출구로 준비하는 것은 역사 속의 제국주의 나라들이 언제나 그랬듯이 전쟁책동입니다. (전쟁책동의 원인)

미국은 지금 내외의 고립상태에 있습니다.

◆자국내의 모순

세계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호언장담하던 미국 증시마저 붕괴하고 1980년대부터 미국은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즉 쌍둥이 적자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어 왔었습니다. 이는 IMF라는 것을 식민지국가들에 강요하면서 급한 불은 꺼붙려고 했으나 이것은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경제파산을 가져왔고 동남아, 한국, 러시아, 중남미로 급속히 번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의 경제파산은 미제의 식민지 시장의 몰락을 의미했고, 투기성자본의 위기로 번져 나갔습니다. 자본의 집중현상에 의해 호황을 맞이하고 있던 미국의 거품경제는 결국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주민중들의 투쟁력만을 키워주게되는 역효과를 가져왔고 미국내 국민들의 불만 또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 ◆이라크 침공으로 확인된 국제적 교립

이라크 침공을 보면서 우리는 미제국주의가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의 여론이 강력하게 비난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낼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클린턴이 탄핵의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중동지역에서 자신의 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미국의 전세계내에서의 정치군사적 지위하락에서 연유됩니다.

미국은 원래 이라크 침공의 목적이 이라크의 핵무기, 대량무기 개발 저지와 인접국의 평화,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이라크의 핵무기 사찰단이라고 하는 것의 구성 자체가 미국과 영국으로만 되어있었으며 정상적으로 사찰했었던 300여곳은 보고서에서 삭제되어 여론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엔 미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찰단이 철수하였고 그리고 나서 바로 침공을 감행한 경황등을 미루어 볼 때 특별사찰이라는 것은 전쟁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심지어 미국의 자국내에서까지 미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이 더 이상 생명연장의 출로를 찾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군사적 공격으로 패배의 쓴 맛을 본 미국은 전세계내에서 자신의 추락속도를 가속화하는 외 어떤의미도 찾을 수 없게되었습니다.

#### ◆자본주의 패권경제의 몰락

한때 군사적 강점으로 호황을 누리왔던 때를 회상하면서 전쟁을 통해 자신의 부귀영화를 다시 찾아 보려했지만 오히려 종말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미제국주의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약소국들에 대한 지배와 수탈을 통해서 유지, 존속되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배와 수탈이 불가능해질 때 제국주의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선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북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핵을 사찰, 확인하지 않고서는 다시 북미 제네바 합의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을 발표하였고 보상금 따위를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이북은 사찰을 하고 나서 핵 시설이 아닐 경우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미제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데, 이북만 합의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말의 의미는 미제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핵 개발을 할 것이고, 또한 개발한 미사일을 수출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북의 미사일이 중동으로 수출되고 자신의 약탈국인 3세계국가들이 미국과 맞먹는 군사무기를 가진다면 군사력으로 모든 세계이권을 가지려 해왔던 미국에게는 그야말로 적신호인 것입니다.

#### ◆사대정권의 몰락

김대중정권은 집권초기에 1년 반 안에 IMF를 탈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지금 정치권에서조차 나아가 국민들 누구하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쏟아지는 기업의 부도, 붓물 터지듯 밀려나오는 실업자, 정리해고 영순위로 실업대열의 선봉에 서도록 강요받은 여성들, 노숙자로 동사로 죽어가는 사람,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식의 손가락을 자르고 모숨을 내던지는 사람들, 한반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민중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 하루하루 터질 것 같습니다.

실지로 경제 분석가들이 내년 1,2월이면 국고가 바닥이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은 광범위한 민중항쟁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면을 정권이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사대정권으로써 미국의 운명과 같이 해야 하기에 정권은 미국의 전쟁채동, 긴장고조에 부화뇌동하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 볼려고 할 것입니다.

④식민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여성민중들을 더욱더 이루 말 할 수 없는 참화를 가져온다.

미국의 사주에 의해 연명하는 현정권은 7천만을 핵전쟁참화로 몰아넣고 있는 것과 더불어 여성민중들을 호전 호색광들의 성노리개로 전락시키는 몰지각한 행각을 벌였습니다.

**김대중 정권과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창제도를 합법화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공창제도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몸 파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하여 만들어진 여성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미 한국사회에서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는 법제도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매춘이 공공연하게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지촌에서 그것이 허용되고 있고 기생관광이라는 것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부가 발급하는 '보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매매춘 허용장치가 되면서 돈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공창제도는 일본에 의해 처음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 해방후 폐지되기는 했으나 이 땅의 곳곳에서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침략도구의 일환으로 여성의 성을 약탈하고 유린하면서 수 많은 우리 민족의 여성들을 처참히 짓밟아 왔습니다. 더불어 여성의 성을 상품가치로 만들고 지배의 수단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등 4천만의 성의식의 문란을 한반도 끝수 깊이 몰들여 놓았고 여성의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바닥으로 내려 놓았습니다.

즉,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이미 한반도는 공창제도가 합법화된 것이나 다름없는데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공창제도를 합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외화획득을 위해 순진한 여성들을 기생관광으로 내모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으며, 미제국주의와 일제의 성 호색광들에게 우리 여성들을 들어내놓고 농락당하는 것을 인정하는 작태임에 다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쟁책동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에 공창제도가 다시 이야기 되고 있다는 데서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전쟁범죄인 정신대 할머니분들이 여전히 투쟁하며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두 눈 부릅뜨고 그 손녀딸들에게 제 2의 정신대를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일본군과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전쟁범죄인 정신대문제를 국가적 책임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국제여론이 기생관광 또한 비난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에는 미일호색광, 미일호전광들에게 민족의 여성을 팔아먹고 한반도를 그들의 성의 놀이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경험해 보았던 한민족의 여성으로 전쟁이 여성들에게 던져주는 참혹함을, 정신대 할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주한미군속의 기지촌을 보면서 우리는 절실히 느끼기에 지금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여성들에게는 두동강이 나서 분단된 식민지의 삶을 강요받아왔던 민족적 모순과, 자본주의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지로 서구의 자본주의를 무분별하게 유입해 와서 절름발이 자본주의인 한반도에서 여성은 그야말로 또 하나의 식민지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하게 동등한 인간으로의 존대를 받지못했던 계급적 모순, 그리고 요구만 한다면 인간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노리개만을 가진 상품으로 전락해왔던 성모순, 이런 총체적인 모순들은 바로 미제국주의에 의해 획책되고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은 잠재되어 있는 듯하다가 전쟁등의 민족적 혼란의 시기가 오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전 정신대가 그랬던 것처럼 군의 사기를 돋우기위한 명목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공창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사대정권이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면서 민족의 여성을 한번 유린해 보겠다는 준비가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설사 그것이 범제화 되지는 않는다하더라도 집권당의 국회의원의 발언은 지금시기에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반도의 남성은 총알받이로 여성은 정신대로 몰아쳐질 것은 불을보듯 뻔한 일일테니 말입니다.

한반도의 핵참화 책동을 저지 파탄내고 미제를 몰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미제는 풍줄을 타고 있기에 여성해방의 선결과제인 민족의 자주는 이제 눈 앞에 있습니다.

### ⑤통일의 결정적 국면이 도래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반세기 이래로 각계각지에서 통일을 예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방북한 이가 4천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정주영의 소떼 방북이후, 해주에는 2천만평의 공단건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방식을 따라 중국을 통한 교류를 하게 된다면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남과 북을 바로 이어주는 육로를 건설한다는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아니라 한반도 분단의 상징 38철책선 또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4천만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이미 이남과 이북의 민중은 통일의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동안 남북 분단의 고착을 위해 결정적 국면이 있을때마다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는 데 사용되어지거나 통일세력의 결집을 막고 분열 탄압 구속하는 방편을 사용되어져 왔던 국가보안법이 민중들의 광범위한 철폐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고 또한 미국의 전쟁책동 앞에서 이북은 미국에게 전쟁이나 대화이냐를 던져놓고 주동적이고 강경한 대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화가 된다하더라도 협상내용에 분명히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내용은 빠질 수 없을 것이며 전쟁이라 하더라도 7천만 민중이 몰락해가는 미국에 대응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100만 청년학도와 50만 청년여학도의 투쟁으로 미국은 전쟁으로 망하느냐, 대화로 망하느냐의 두 갈래 갈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7천만 전민족이 반미 자주화 투쟁을 폭발시켜 내어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 길 만이 남았습니다.

## 99년 1-2월 시기규정

주체정세를 중심으로

미국의 패퇴몰락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발악으로 전쟁책동을 한반도에 자행하고 있지만 이북의 자주국방과 자주교는 미국의 몰락의 길을 앞당기고만 있습니다.

그간 제국주의의 마수를 한반도에 들이대며 자주민중의 피를 빨아먹어 왔던 미제는 이제 한반도내의 민중들의 자주 열망으로 하여 자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이든 노동자든 농민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가 하나같이 반미항전으로 일떠서야 할 때입니다. 미제는 가만히 앉아서 자신의 몰락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전 한반도의 모든 계급과 계층은 자주권의 쟁취를 위해 하나같이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이미 50년 동안 미제의 온갖 탄압속에서 분노로 결집하고 투쟁으로 조직화된 우리 민중은 미제와 대격돌을 맞이 할 민병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3천만 여성민중의 자주외침을 가세하면서 7천만의 반미 통일투쟁과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혹 통일이 되고 나서 여성해방을 이루겠다는 우리 일꾼들이 있다면 오산입니다.

여성해방, 인간해방의 길도 어느 누가 터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남의 투쟁의 성과물을 청길수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써 내가 한민족의 여성으로써 우리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당해왔던 수모를 투쟁으로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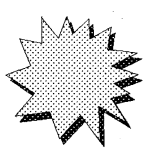
방중이라 조직이 이완되어 어렵다고 하지 맙시다. 2천만 여성민중은 간악한 미제와의 대격돌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나서지 않으면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여성해방은 요원한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2천만의 등대지기라 이야기해왔고 예비 여성노동자가 되어야 할 청년여학도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50년의 굴레를 벗고 자주여성민중으로 살아갈 것이냐, 또다시 식민지 여성민중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기로에 섰습니다. 50년의 투쟁으로 힘차게 박차나갑시다.

# 대중투쟁과제

수요시위, 금요시위의 작음규모의 투쟁으로 기본을 지켜  
한반도 여성민중의 반미자주화투쟁으로 결집시키고  
남, 북, 해외 여성민중과 7천만이 함께하는 정신대 문제완전해결 투쟁,  
주한미군철거 투쟁으로 미국에 의한 전쟁책동 분쇄하고  
조국통일 투쟁으로 모두다 일떠서자.

★전쟁책동 분쇄투쟁을 반미자주화 투쟁으로 총결집시킨다.



## 과제1

### “수요집회의 일상화”

#### 의식화 지점 ①

“남 북 해외 3자의 연대로 일본군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이루고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남, 북, 해외 3자연대와 7천만이 하나되어 정신대 할머니 문제완전해결, 조국통일 안아오자.>

올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북경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와 여성의 인권에 관한 남과 북, 3자 회합이 진행되었습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는 강도 일제가 자행한 범죄 가운데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중 하나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제는 관권, 금권들을 동원해 근 20만에 달하는 한국의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황군의 성노리개로 전락시켰고 그들의 정조, 청춘, 육체를 모조리 말살했었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아직도 종군 위안부 범죄행위가 드러난 현 시점에 와서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니 꾸며낸 이야기라느니 그 무슨 구실을 내세워 솔직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 지 해운보조 한다.

국가가 지은 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은 국제 관례이며 기본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종군위안부 범죄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주도하에 자행되었다는 것은 강덕경할머니를 비롯한 수많은 정신대 할머니의 증언과 국제적인 역사적 사실들에 의해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해 법적 해결을 책임지려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으며 이른바 국민기금이라는 것을 통해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려했던 책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남한 만이 아닌 남과 북의 여성들과 민중들이 하나되어 힘있게 투쟁해야 할 것입니다. 투쟁만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종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내외여론의 강력한 비판과 국제적 고립을 면치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김대중 정권의 방일을 계기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청산의 문제를 백지화하려는 일본과 정권입니다. 반드시 한일공동성명과 한일어업협정을 무효화하는 투쟁을 함께 벌이면서 우리는 일본에게 아직도 청산되지 않은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96년 2기 전여대협에서는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을 선언하면서 각 대학에서는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선봉대'를 구성하여 국회청원서명운동을 벌였고 그 결과 경북대에서만도 10명도 채안되는 선봉대원들이 5천 명의 지지서명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요시위 전국 집중관 이후 외교관 앞 기습투쟁에서 2기 전여대협 의장님의 우렁찬 구호 소리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96년의 그러한 강고한 투쟁으로 정신대 문제가 광범위한 대중들에게 공감을 만들어내면서 빈일의 감정이 4천만에게 들끓게 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의 정권은 대화합의 논리를 펴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96년의 성과를 이어받아 99년 완전해결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시기 제국주의 패망의 과정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제국주의가 무릎을 꿇는 과정에 우리는 명확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암종양이 팔에도 있는데 심장에 있는 암종양이 가장 근본이고 위험하다고 심장부분의 종양만 제거한다면 그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팔의 종양도 함께 제거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것처럼 통일이 되고 제국주의자들이 무릎을 꿇는다 하더라도 정신대 문제 사죄 배상의 구호를 들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결코 정신대 문제만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99년 통일의 대사변에서 우리가 주도성있게 준비하는 투쟁, 그것이 바로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 투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첫째 일본정부는 국제법 위반을 정중하게 사죄하고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며, 둘째 일본정부는 식민지 피해자들을 인정해 종군위안부 문제를 국민기금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며 셋째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올바르게 실어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넷째 일본정부는 유엔 인권위의 법적으로 책임지고 사죄하고 배상할 것에 대한 권고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남북의 모든여성들과 민중들이 함께 할 때 승리는 눈앞에 있을 것입니다.

이북의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의 성과와 우리의 성과를 하나로 모은다면 강도 일제는 금시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 의식화 지점 ②

### “공창제도 입법화는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강간을 입법화하는 것”

#### 〈한반도 전쟁에서 민족의 여성을 군수물자 수출하듯 팔아넘기겠다는 말인가〉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식회사로서 국가의 '금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군산 "아메리카 타운" 의 문제를 의면하고, 급진적인 서구문화의 공창제도를 그대로 유입하고 입법화하는 것은 민족의 여성을 외화벌이용으로 이용하고자하는 의도에 다름아니며 종군위안부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부패 타락한 일



본문화와 양키문화가 마구 쏟아져 사람들의 머리를 병들게하고 있는 상황이고 합법적인 공창제도 도입을 하지 않아도 이미 이 땅은 미일 호색광들의 성의 놀이터로 변해 우리 여성들이 무참히 농락 당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는 공창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의도를 정확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실제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더러라도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여성들 앞에서 공창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이 어떠겠느냐는 말을 했다는 것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넌지시 흘려보았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실제 입법화 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창제도 입법화 발언이후 국민회의 측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발언이후 바로 한겨레 신문등지에서 문제화했고, 심지어는 부산지역 모대학 총여학생회에 총여학생회 학원담당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공창제도 입법화 발언에 대한 총여학생회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발언을 이 땅의 계속되는 긴장고조 전쟁책동의 위험속에서 미일 호색광들에게 한국의 여성을 팔아넘기기위한 준비에 다름아니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만행은 일찍이 미군의 한국강점 이후 10만건 이상을 상화하면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지만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주인된 목소리 한번 내어보지 못한 현실이었습니다. 언제나 한반도는 미군에 의해 언제나 준전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미제의 돌과구 전쟁 놀음에서 2천만 여성이 정부의 묵인하에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게 생겼습니다.

현 정권이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니었으며 민중의 편에 있는 정부가 아니었음은 잘 알고 있었으나 이런 추악하고 패륜패덕하기 짝이 없는 반인륜적인 행각은 차마 역대정권도 입에 담지 못하는 행각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던 일본은 유엔 인권위를 비롯한 전세계 각지의 비난 여론에 휩싸여 있는 마당에 더군다나 그에 의해 자신의 한 생을 빼앗겼던 정신대 할머니들이 여전히 두 눈 부릅뜨고 살아계시는데 과연 이러한 행각이 있을 법한 일입니까?

각계의 여성이든 남성이든 애국민중이 현정권에 대해 기대를 걸 것도 지켜볼 것도 환상을 가질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에 사대하고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제 여성들은 물론 각계층 민중들과 함께 투쟁으로 이 합법적인 공창제도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미국의 전쟁책동을 분쇄하는 투쟁에 함께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권 또한 더 이상 사대하지 말고 7천만 민족의 편에 서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그를 즉시 철회해야 합니다. 만약 그 목소리를 국회에서 그것을 법제화한다면 추악한 반인륜 집단으로서 역사와 민족 앞에 또 하나의 더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 투쟁방도

올 초에 우리는 500여명의 광범위한 대중들과 수요집회를 힘있게 성사시켜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수요집회에 결합하면서 단위의 대중흐름을 만들어간 투쟁의 모범이 있습니다. 기본을 지켜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그 속에서 대중들을 결집시키고 그것을 큰 규모의 투쟁으로 만들어갑시다. 우리 단위의 대중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투쟁을 계속 벌이는 것과 함께 작은 규모의 기본 제기되는 투쟁을 지켜가면서 배합해 벌여나가야 합니다.

즉 투쟁의 직접적 담당자인 민중의 의식수준과 적어간의 역량관계, 적의 형편과 지도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매우 큰 규모의 투쟁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본을 지켜가며 결국 대중적인 결집판으로 우리가 만들어 갑시다.

수요집회와 같은 작은 규모의 투쟁은 각처에서 많지 않은 규모로 만들어지는 투쟁이어서 그 자체로서는 파소권력 집단과 미제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지만 이러한 작은 규모의 투쟁은 각계층 군중을 쉽게 모으고 그들을 실천투쟁 속에서 깨우치고 조직적으로 결속하는데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에 있어 민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기에 일상적인 작은 단위의 투쟁이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 단 시일내에 큰 규모의 투쟁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상 4.19에서나 6월 민중항쟁의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투쟁들은 수많은 작은 규모의 투쟁속에서 각성되고, 단련되고, 결속된 각계각층 민중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한 것이었으며 대중투쟁의 결정적 승리를 위해 우리 일꾼들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요집회를 일상적으로 선전하여 그 속에서 대중들을 준비시키고 3월 집중투쟁때까지 지역단위에서는 수요선전전등을 통해 우리 대중들을 만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본대사관앞에서의 수요시위에 일상적으로 결합합니다.

※99년 통일의 대사변을 준비하는 시기에 맞물려 진행하는 정신대 문제 남북해외 3자 연대투쟁을 본때있게 가져가기 위한 의식화의 구체적 내용은 여러차례 나누어 따로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은 98년 정세정리만해서 제출합니다.

◀총화점: 3월00일

◀준비내용: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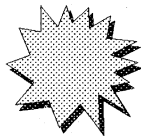
대중 의식화 지점을 명확히 "전쟁책동 분쇄 제 2의 정신대 막아내자 와", 과제2에서 도출된 내용을 참조로 "3자 연대 속에서 정신대 해결의 의미가 있음" 로 하여 지속적으로 내용의 원칙을 세워 대중들을 만나자.

2단계

자주교류의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 광범위한 대중들과 함께 준비하자.

3단계

총화지점에 광범위한 대중집회를 상징하고 남, 북, 해외 3자 공동연대 집회를 만들어간다.



**과제2**

## “**금요집회의 일상화**”

금요집회 또한 수요집회를 바라보는 관점과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한민족의 여성을 유린해왔던 역사가 식민지 여성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을 막아야 하는 당연한 투쟁근거로 됩니다. 광범위한 주한미군철폐 투쟁,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투쟁, 조국 통일을 이루는 투쟁으로 대중들을 만납니다. 반드시 청년여학우들이 주동해서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데 주인된 투쟁이 되게 합니다.

금요집회 반드시 나로부터 시수하자.

◀총화점: ★★3월 중순 금요집회 전여대협 집중관을 제안합니다.

◀준비내용: 선전의식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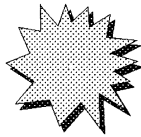
단계별 과제

1단계는 "전면적이고 전문적인 주한미군 철거투쟁으로 전쟁책동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조국 건설하자." 기간 진행한 주한미군 철거투쟁을 학우들과 함께 정리해가면서 학우들

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를 그들의 몫으로 돌려주자. 더불어 핵심적으로 시급하게 전쟁국면이 주한미군을 중심으로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선전화하자.

2단계는 수년에 걸쳐 의식화되고 최근 들어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는 반미의식지점을 명확히 잡아내고 이론이 아닌 **실전을 준비하는 시기**로 정하자. 지역마다 주한미군 부대가 하나씩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형성되어진 객관 정세를 잘 이용하자. 미군부대가 없는 광주는 지역에 맞는 창조적 고민이 필요하다. 이때쯤에는 학교-지역으로 이어지는 수위높은 실전투쟁을 준비하자. 물론 여학단위만 투쟁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 철거는 민족에게 주어져 있는 조국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 해결해야할 과제이므로 두려워말고 총학생회와 지역총련과 과감성있는 실전투쟁을 할수 있을 것이다.

3단계는 지역과 학교에서 모아진 투쟁의 열기로 **전여대협과 함께 서울의 거리에서 주한미군 철거를 외쳐보자.** 3단계의 실전은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하므로 차후 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 과제3

## “광범위하고 원칙적인 연대투쟁”

**식민지 2천만 여성민중의 자주성 회복을 위한 조직은 모두다 하나되어 반미,**

**반전으로 나아가자.**

우리 여학단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연대단위는 고민해보면 많습니다. 그만큼 여성민중들의 요구가 사회 각 분야에서 주동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대단위의 강건너 불구경하듯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거나 혹은 고민은 되는데 구체적인 연대의 방도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연대를 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진정 연대가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 단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연대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원칙을 서술해 보았습니다.

### ※연대 사업이란 무엇인가.

#### ▶연대 사업의 중요성

#### ①광범위한 계급, 계층을 결집시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서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주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싸우고자 하는 대상과의 힘의 대결입니다.

우리 민중들에게 끝없이 고통만을 가주어키고 그 대가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적대적 대상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무기는 실로 엄청나고 강고해 지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오로지 하나 민중들밖에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 탄압받는 계층은 단순히 하나. 둘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급 계층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급계층의 역량들을 하나로 묶어 세울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반